

국내 환자도서관 모형 개발*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

신익수 · 박서은 · 정유진 · 양지선 · 박소영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atients' Library Model

Asan Medical Libra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uisoo Shin, Suh-Eun Park, Eugene Jung, Jisun Yang, Soyoung Park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atients' library' model adequat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Korea. We reviewed literature on patients' library and analyzed four guidelines (IFLA, MLA 1/2 ed., and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Coincidental with the literature review and guideline analysis, we conducted a review of some targeting patients' libraries through visits, telephone interviews and analysis of websites. Through the background research, main components necessary for patients' library are extracted and structured, which are role, mission and goals, management, organization, facilities, personnel, budgeting, collections, program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and other considerations. Based on this research, we therefore draw up a set of suggestive three-phase patients' library model in Korea comprised of crucial elements which are personnel, collection development and services.

Key Words: Consumer health information (CHI), Information service, Medical librarianship, Patient education, Patients' library

서 론

1. 연구 필요성

개인의 보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환자중심치료(patient centered care)가 현재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¹ 그러나 인터넷 등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의료정보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의사사전이나 전문데이터베이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정보와 일반시민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로로서 환자도서관과 사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MLA가이드라인 1판²에 따르면 “환자, 보건관리소비자는 정확한 보건정보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서이다. 사서는 건강정보네비게이터로서 환자와 건강정보를 적절한 포맷과 적절한 리딩 수준으로 연결해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기준³에서는 병원

* 본 논문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실시한 ‘2013년 연구 프로젝트 공모’ 수상작으로 최종 보고서를 “의학정보관리” 논문으로 제출함

(환자)도서관의 사명을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건강 및 질환에 관한 정보, 의료, 여가, 오락 자료 등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환자도서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제반 시설 및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로 환자 및 가족에게 일반 도서 위주의 열람서비스 정도를 제공하는 수준으로써 일본의 1990년 경과 비슷한 상황이다.⁴ 따라서 환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건정보서비스와 편안한 독서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정보원으로서의 환자도서관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항목 분석, 논문 고찰, 사례조사를 통하여 환자도서관의 인력, 예산, 시설, 서비스 등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환자도서관(Patients' Library)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병원 내의 환자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3. 용어 정의

(1) 환자도서관(Patients' Library):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을 도서관법 제2조 4항 다호에서 병원도서관으로 지칭하고 있고,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병원(환자)도서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IFLA가이드라인⁵ 및 미국, 일본에서는 환자도서관(Patients' Library)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도서관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2) 소비자보건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CHI): Consumer health information은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이다.⁶ 국내에서는 소비자보건정보 또는 소비자건강정보로 주로 지칭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건정보로 명칭을 통일한다.

연구방법

1. 논문 고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했다. DBPIA, Google Scholar, Health Business Elite, KISS, KoreaMed, PubMed, Scopus에서 1990년 이후 병원, 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에 관한 영문 및 국문을 검색하였다.

2. 가이드라인 분석

환자도서관과 관련된 2000년 IFLA가이드라인, 2000년 MLAg이드라인 1판 16장, 2011년 MLAg이드라인 2판¹ 14장, 2013년 한국도서관기준을 분석하고 공통 항목을 추출하였다.

3. 사례 조사

국내 환자도서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설립 유형에 따라 총 3개 기관을 선정, 방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가이드라인에서 추출한 항목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은 환자도서관 2개 기관을 견학한 사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정된 3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환자도서관 1개 기관의 사례와 일본의학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사서 대상 환자도서관 설문 조사 결과와 기초연수회 토론 내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논문 고찰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를 환자도서관의 역사, 목적, 구성요소, 소비자보건의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였다.

(1) **환자도서관의 역사:** 환자도서관의 기원은 1276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내과 및 외과적 치료 외에 희망하는 환자에게 주야로 코란을 읽어주거나 음악 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있다. 17~18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독서처방을 하였고 정신병원은 환자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즉 초창기 환자도서관은 책과 독서가 ‘환자의 재활을 촉진 시킨다’는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시작, 발전되었다.⁵ 미국에서는 19세기 초 정신병 환자에게 독서를 중요한 치료 요소로 생각하였고^{7,8} 1차 세계대전 입원군인을 대상으로 미국 도서관협회(ALA)에서 독서치료를 시행하였다.⁵ 1920년대 Western Reserve University 대학원에서 최초로 환자도서관에 관한 표준을 만들었으며 이후 미국 및 국제학회에서 환자도서관 위원회가 세워졌다.^{7,8}

1970년 ALA의 보건관리기관 도서관서비스 기준⁹에 ‘The Patients’ Library’장이 포함되었다. 이후 IFLA, MLA에서 환자도서관 기준을 발행, 개정하였다. 1996년 MLA의 ‘소비자 및 환자 보건정보분과’(CAPHIS)¹⁰에서 소비자보건정보와 환자교육에서의 사서의 역할을 장서조직, 지식 및 공유, 지원, 정보의 접근 및 보급, 교육, 연구로 제시하였다. 1997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Healthfinder를 서비스하였고,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1998년 MedlinePlus[®]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다.²

(2) **설립 목적:** 병원은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차세계대전 후 1947년 뉴른베르크 윤리강령, 1964년 세계의사회 헬싱키선언,¹¹ 1972년 미국병원협회 환자권리장전¹² 등 환자의 인권존중, 소비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생명윤리’ 체계가 발전되었고 이후 병원인증기준을 통해 환자중심의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병원인증 기준 4판¹³과 2011년 대한병원협회 JCI 병원인증 기준집(2010 JCI 번역판)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에 충분히 참여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 진료와 의료서비스 내용,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로 교육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치료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¹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⁵ 이에 병원은 내원 및 입원환자와 가족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14,16}로 환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적극적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회복과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¹⁷ Krusinga¹⁸는 Emma 소아병원정보센터의 환자, 환자 부모, 의료종사자, 간호사, 의사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서비스를 분석하여 대학 아동병원의 전문정보센터(도서관)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환자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설립 구성 요소:** 환자도서관을 설립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기금을 통한 자원 확보,¹⁹⁻²¹ 근처 병원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운영,²²⁻²⁴ 국립 환자도서관 설립²⁵에 관한 논문은 고찰하였으나 병원 자체예산에 관한 논문은 근거가 부족하였다. Lambremont²⁶에 의하면 환자, 가족 교육에 연간 6,000달러가 소요된다고 하며 소비자보건정보원 비용으로 2년에 1,200달러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환자도서관은 의학 전문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서비스 요구 증가로 의학사서의 역할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료정보제공 가치와 목표를 비교 판단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²⁷ 또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할 의학

미디어 콘텐츠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사서가 수행해야 한다.²⁸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서를 배치하지 못하거나 많은 환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충분한 사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에 환자를 직접 대하는 간호사와의 협업²⁹ 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의 자원봉사자는 사서가 환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서는 자원봉사자의 요구와 수준, 병원의 목적에 맞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One-man library 사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³⁰

환자도서관은 이동 거리와 편의성을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착용한 환자들이 많으므로 시설을 정하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⁵ 병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는 병동마다 도서를 비치³¹하여 간호사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환자도서관 궁극의 목적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Marshall은 환자 치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료진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환자 치료 상황에 있어 정보서비스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이 확실하게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³² 환자들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장서개발, 정보 제공방법, 환자교육을 통해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해야 한다. 장서는 텍스트, 멀티미디어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의학 정보를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¹⁶ 텍스트를 활용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멀티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²⁹

환자교육 사례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PFLC (Patient and Family Learning Center) 프로젝트는 간호사, 교육센터 봉사자, 환자교육전문가, 사서가 최신의 소비자보건정보를 협력하여 교육하는 방안¹⁵

을 보여준다. 의료제공자가 미리 선정된 비디오, 브로슈어 등의 환자교육 자료를 선택하여, 환자가 쉽게 의학사서와 상의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과 통합된 참조 시스템이 설계되었다.³³

암환자들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정보제공 서비스도 필요하다. 암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¹⁴ 암환자의 단계에 맞는 장서개발, 네트워크, 온라인 정보원, 직업 기회 등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³⁴ 또한 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력 있는 암전문간호사를 배치하고 팸플릿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³⁵

2. 가이드라인 분석

4개의 가이드라인을 <표 1>과 같이 환자도서관의 목적, 대상, 조직, 시설, 인력, 예산, 장서개발, 서비스로 요약하였다.

(1) 목적 및 대상: 4개 가이드라인 모두 목적 및 대상은 일맥상통하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조직: 조직은 크기, 직원, 서비스 범위 등의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IFLA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 자체 예산을 통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3) 시설: IFLA가이드라인과 한국도서관기준은 환자도서관의 위치를 병원 중앙에 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FAL가이드라인은 위치, 공간, 구성, 조명, 시설 비품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출입구는 휠체어, 이동침대가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이 넓어야 하며, 전면 또는 반면 유리문을 고려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마크 부착, 버튼,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문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 공간은 타 부서와 공유해서는 안되며 단기간 입원환자 기준 5~10%

표 1. 가이드라인 요약

항목	IFLA	MLA 1판	MLA 2판	한국도서관기준
목적	1. 환자의 요구에 부응 2.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 3. 보건정보 제공		1. 환자 안전 전략 2. 치료 포함 활동 지원	1. 이용자에게 질한 및 보건정보를 수집, 제공 2. 치유와 여가활용에 기여 3.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유도
대상	환자(입원, 외래), 보호자	1. 환자(입원, 외래), 2. 보호자(가족, 친구) 3. 병원직원(의료인, 비의료인) 4. 자원봉사단체, 개별단체, 5. 타도서관	1. 공공도서관 이용자 및 사서 2. 환자, 보호자, 병원 내 커뮤니티(종교단체 등) 3. 물리치료사, 상담사	환자, 보호자
조직	1. 병원 자체 예산 및 외부기관 지원 2.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 3. 자원봉사단체가 설치, 유지 4. 병원과 외부 도서관(기관)의 협력	크기, 직원, 서비스, 지원, 지역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조직이 다름		1. 도서관운영위원회 2. 입원환자, 병원직원 3. 주변지역에 개방 4. 타부서, 타기관과 협력
시설	위치, 공간 구성, 조명, 테이블, 램프, 의자, 바닥재, 서가, 집기류 및 기타 전자기기			위치, 자료, 열람, 직원, 공유(라운지 등), 조명, 가구, 테이블, 의자, 면적
인력	1. 직원 사이즈, 구성 결정 요인 2. 인력구성(전문사서, 보조인력, 기술직원) 3. 자격요건 4. 자원봉사자 역할		1. 전문사서 2. 보조인력 3. 자원봉사자 역할	1. 관장 2. 사서 3. 사서보조
예산	예산항목: 급여, 장서구입/유지비, 시청각 장비 등 기타	예산항목: 급여, 장서구입/유지비, 홍보물, 시청각 장비 등 기타	1. 기금조달(Funding): 파트너십, 기부기금, 연례기금 2. 예산항목: 급여, 장서구입/유지비, 홍보물, 회비(도협..), 시청각 장비 등 기타	1. 예산 일반원칙: 도서관장 역할, 자료/서비스 배정 예산, 시청각자료, 보조기기 등 기타비용 2. 예산 배정기준
장서개발	1. 장서 선정 기준 2. 인쇄 교양/보건정보 자료 3. 장서규모: 병상 수 기준	1. 장서 선정 기준 2. 장서 평가 항목 3. 장서 조직/형태	1. 장서 개발 정책 2. 장서 선정 기준 3. 소비자보건정보원 활용 4. 장서 제공 방법 5. Outreach	1. 장서 개발 정책 2. 장서 선정 기준 3. 장서규모: 병상 수 기준(연속간행물 증가 기준 포함) 4. 장서제공 방법
서비스	1. 환자그룹 중심의 서비스 계획 2. 환자의 병원생활 지원		1. 보건 정보 서비스, 평가 2. 위원회 구성.	1. 양질의 이용자봉사 개발, 제공 정책 2.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관리 3. 대출/열람, 참고정보봉사,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좌석, 장기 입원환자 기준 15~30%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공간 할당은 열람 공간, 시청각 공간, 컴퓨터 공간, 참고정보 공간, 화장실, 편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어린이 공간, 사무 공간, 라운지시설(자원봉사자, 직원 휴게실) 등으로 배정해야 한다. 조명은 직사광선을 피해 자연광을 이용해야 하며 제한적으로 적절한 인공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용자 특성에 맞는 테이블 설치, 안락하고 내구성이 좋은 다양한 의자를 배치해야 한다. 바닥재는 감염 관리가 쉬운 재질로 선택해야 한다.

한국도서관기준은 자료 공간, 열람 공간, 직원 공간, 공유 공간(화장실, 휴게실, 어린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명은 자연채광을 활용해야 하고 이용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서가, 테이블, 의자 등을 배치해야 한다. 면적 부분은 봉사대상자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그 기준은 봉사대상자 500인 미만(99 m² 이상), 500~1,000인 미만(132 m² 이상), 1,000~1,500인 미만(165 m² 이상), 1,500인 이상(198 m² 이상) 이다.

(4) 인력: IFLA가이드라인에서는 인력 규모, 인력 유형, 자격요건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인력 규모는 병원의 크기와 유형, 도서관 또는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의 유형과 명수, 제공정보원,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 1명 이상의 전문사서, 1명 이상의 사서보조, 기능보조, 사무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만약 정규직사서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전문사서를 초빙하거나 타 기관의 사서인력공유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인력 없이 보조인력만으로는 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자격요건은 전문사서 지식, 행정능력, 서비스 마인드 등을 갖추어야 한다.

MLA가이드라인 2판에서는 전문사서, 보조인력, 자원봉사자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관장 1인(병상 1,000 미만일 경우 사서겸직 가능), 사서 1인, 사서 보조 1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5) 예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급여, 장서구입/유지, 홍보물, 직원 교육비, 시청각 장비, 사무 장비 등을 기술하고 있다.

IFLA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도서 구입비를 1 병상당 필요 권수*병상수*평균단가로 계산하고 있으며 기존 장서유지를 위해 장서 10~15%를 연간 신간도서 구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간예산은 1권

가격의 300배로 책정해야 하며 시청각자료나 보조 기기가 많이 필요한 도서관은 위 공식에 의한 산출 금액보다 예산이 많아야 한다.

MLA가이드라인 1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금조달(Funding)이다. 비용을 분담할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모기관과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서관 지원을 위한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례기금을 모금해야 한다.

한국도서관기준의 예산 배정기준에서 예산항목은 인건비(60%), 자료구입비(20~30%), 기타운영비(10~20%), 보조기기 구입(별도)으로 되어있고 기존장서가격의 10~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간 구입비로 책정해야 한다.

(6) 장서개발: 장서는 대체로 고품질의 의학 관련, 보건 가이드, 교양 자료를 환자들의 특성에 맞게 인쇄자료, 멀티미디어, 인터넷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소장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보건정보원에 관한 장서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장서의 규모와 관련하여 IFLA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의 병상 수에 의해 장서 규모를 정하고 있다. 300병상 이하(1병상 당 8책), 300~500병상(1병상 당 7책), 500병상 이상(1병상 당 6책), 장기요양기관(1병상 당 8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은 IFLA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병상 수 기준의 확대, 연간 증가 책 수, 연속간행물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은 <표 2>와 같다.

(7) 서비스: 서비스는 주로 소비자보건정보 제공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환자 그룹 중심의 서비스를

표 2. 한국도서관기준 1 병상 당 장서 규모

병상 수 (서비스 대상)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 이상
도서 (병상당)	기본장서(권)	8	7	6	5	4
	연간 증가 책 수(권)	0.5	0.5	0.5	0.5	0.5
연속간행물	기본장서(종)	30	30	30	35	65

계획해야 하며, 환자의 병원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정보원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하며 양질의 이용자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병원생활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8) CHI 서비스 3요소: MLA가이드라인 1판에서는 CHI 3요소(이용자, 장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단계별 환자도서관 모형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사례조사

(1) 국내: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환자도서관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³⁶에서는 환자도서관을 국립, 공공(일반, 어린이), 작은문고,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중 하나의 카테고리인 병원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설립 기관 수 등 설치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련 언론기사, 인터넷 검색, 방문 등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64개 환자도서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기관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관 지원단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 프로젝트 별 후원내용 및 설립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조사된 기관 외에도 흥국금융가족 후원으로 도서를 기증받아 개소한 중앙대병원 다정문고가 있으며, 시민단체나 기업 후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례로는 원주시 작은도서관협회의 지원으로 설립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우리도서관과 전북대학교병원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 외에도 용인정신병원, 서울재활병원 녹색도서관 서울아산병원 도서열람실 등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고, 조사된 기관 외에도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은 여러 환자도서관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 유형에 따라 책임은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도서관인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서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도서열람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재개관한 전북대학교 작은도서관을 선정, 서면인터뷰 및 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①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서재: 서울대학교병원 함춘서재는 국내 최초의 환자도서관으로 1995년 교양도서실로 개설되어 소아별관에 위치하던 것을 2012년 본관 로비로 확장 이전, 현재의 함춘서재로 개관하였다. 함춘서재는 환자와 보호자 등을 위한 정서 함양과 휴식 기능을 겸한 진일보된 형태의 도

표 3. CHI 3요소 환자도서관 단계별 모형

CHI 3요소 및 중점사항	Level 1	Level 2	Level 3
이용자	입원환자, 가족, 친지, 보호자, 의료 제공자	Level 1 + 지역주민 전화 접근	Level 1 + 지역주민 방문 이용
장서	무료 또는 얇가 팸플릿, 일반도서 (소규모)	일반도서(대규모), 정기간행물버티칼 파일	시청각, 전자자원
서비스	방문제한, 전문가의 요청에 의한 자료제공, 대기실 팸플릿 전시	전화레퍼런스 서비스, 복사, 간호사실 문고 서비스	방문이용, 자료대출, 상호대차, 온라인 및 인터넷 접근
중점사항 (인력)	인력은 가장 중요한 사항, 추가 직원이 없어도 병원 내 CH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임	전문사서의 개입이 필요함(전화 레퍼런스)	전담 전문사서의 배치가 필수적임 (방문 및 상호대차 등의 레퍼런스)

표 4. 국내 환자도서관 지원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책 읽는 병원	아름인도서관	도서관이 있는 병원
주최단체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³⁷	아름인도서관	도서관이 있는 병원
후원사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³⁸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³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재단 ³⁹ 신한카드	신문 청년의사, 동국제약
시행기간	2010 ~	2013 ~	2010. 6 ~ 2013. 3
목적	환자와 가족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전달하고 정서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질병 극복의 의지를 북돋는데 기여하고자 환우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의 도서관인 '책 읽는 병원' 건립 지원 사업을 진행	전국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 지역 사회 문화사업으로, 병원을 플랫폼으로 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함	벽지의 중소병원 및 청소년 기관에 환자에게 권장도서 보금과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인적 자아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도서관 보급사업
대상	병원	중소병원	중소병원
지원관수	2	20	30 이상
지원 도서관	1호 강남세브란스(2010년) 2호 서울대병원 합춘서재(2012년)	인천직지사병원, 울산이순요양병원(구 소망요양병원), 인천요양병원, 침면한요양병원, 기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전보람병원,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부민서울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서울북부병원, 명지춘혜병원, 인천은혜병원, 소래영화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주조양병원, 광주보훈병원, 영광종합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전북수병원, 서울메디아이여성병원, 제천명지병원, 성안드레이병원, 삼척의원, 속초의원, 울진군의료원, 영월의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등 지원 예정)
지원 내용	- 환경개선 지원 - 도서 기증	- 환경 개선 지원 - 도서기증(책나눔캠페인 진행) - 북콘서트, 마당극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 환경개선 지원 (인테리어 리모델링) - 도서기증 : 분기별로 한책 기증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은 도서와 신간구입도서 배포 - 아동/청소년 권장도서 지원 - 도서관리프로그램(책꽂이) 설치, 지원
비고	2개 병원도서관 지원 외에 기적의 도서관 11, 학교 도서관 77, 작은도서관 약 500개관 지원	아름인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 하는 신한카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어린이병원 부문에 대해서 2013년 시범적으로 운영	2013. 3 이후 잠정 중단

서관을 표방하고 있으며 도서열람 및 대출시간 외에도 휴게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전 주제 교양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직원에게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홈페이지⁴⁰에서는 소장자료검색, 베스트셀러,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 신착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사서에게 글 남기기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함춘서재는 홍보팀 소속 정사서 1인이 장서구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자 3인이 도서 배가와 대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도서구입비의 경우 약 90%를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10%와 기타 지출 부분은 병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확장 이전 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책읽는병원’ 프로젝트로부터 공간 리모델링 및 도서충당 등의 기금 지원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1993년부터 10년간 연간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약정한 개인기부금이 도서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다. 장서 수는 약 5천 권이며 매월 약 60 권의 신간을 전 주제의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한다. 소비자보건정보 자료 요구도는 높은 편이나 원내 저자의 출판물만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병원 홈페이지 ‘의학정보실’ 카테고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가진단서비스, 의학백과사전, 종합질병정보, 의료기기정보, 건강 FAQ 등의 보건정보는 환자도서관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홍보팀에서는 함춘서재 외에도 소아별관 5층 구교양열람실 위치에 어린이도서관(301번째 아름다운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암병원 2층 로비에 기획팀이 관리하는 모바일 서가, 6층 단기입원 병동과 소아별관 3층에서도 열람서가를 운영한다.

② 서울아산병원 도서열람실: 서울아산병원 도서열람실은 15년 전부터 동관 6층에 있던 것을 2009

년 내원객 편의시설이 인접한 지하 1층으로 확장 이전, 개관하였다. 환자 보호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열람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소아 병동에 이동도서를 운영하고 있다.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일반직 1명이 실무를 담당하고 요일 별로 3~5명의 자원봉사자가 오전, 오후로 교대 근무하며 도서대출 및 배가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전액 병원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

2012년 기준 장서 수는 18,352권으로 소설, 잡지, 만화, 종교서적, 전집류 및 기타 단행본을 기증받거나 구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보건정보 제공은 없으나 병원에서 건강정보 홈페이지⁴¹를 별도 운영하여 질환백과·검사·약물·저서정보 등의 의료정보, 메디컬 칼럼, Web TV의 건강강좌 동영상 등의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와 환우커뮤니티, 개설강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검색시설은 없으며 45평 규모 공간에 서가, 열람석이 있고, 이용 후 손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부에 세면대가 있다.

③ 전북대학교병원 작은도서관: 전북대학교병원 작은도서관은 전주시가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2년 전주시 후원으로 시, 도비 각 4,500만원을 들여 기존 도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1천여 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해 1만 2천 권의 장서를 확충, 본관 지하 1층에 개관하였다.

환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며 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사서 1인이 도서관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병원 내 타 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외에 자원봉사자 10인이 있으며 도서대출, 배가 업무를 지원한다.

초기 공간조성지원금 외에 전주시로부터 매년 3백만 원의 장서구입비를 지원받고 있고 시스템 유지비용은 병원예산으로 지원된다.

장서구성은 희망도서와 신간도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소비자보건정보 제공이 없는 것은 앞의 두 기관과 동일하다.

④ 국내 환자도서관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64개 국내 환자도서관 중 3개 관을 선정하여 서면 인터뷰 및 방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함양 및 문화서비스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제공 서비스도 도서대출 및 열람서비스, 부가적으로는 이동도서 등이며 소비자보건정보 제공을 환자도서관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도서관은 의학도서관과 별개의 행정 부서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환자도서관을 복지 및 부대 시설로 보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담당 사서 또는 담당 행정직원 1인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전북대의 경우는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병원도 함춘서재 외 환자도서관은 모두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기관 외에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전담인력 확보는 더욱 취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관련 부분은 기부금을 받거나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지원단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서관의 경우는 대개 장서구입과 시설 확충(리모델링 등)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서개발 부분에서는 교양자료, 만화, 잡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보건정보 자료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함춘서재 담당 사서는 실제 이용자들의 보건정보와 관련된 도서의 요구도는 높은 편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타 기관 의료진의 저작, 한의학 및 민간요법 등의 기타 치료법 관련 자료) 제공 시 환자는 이를 모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내 환자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여러 기관에서 환자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기능적인 면으로 본다면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입원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에게 정서함양과 문화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공서비스나 운영 형태 등도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환자도서관이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보건 및 질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자도서관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전문인력 배치, 제공서비스 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 미국의 사례로는 주요 의학도서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한 Johns Hopkins Bayview Medical Center,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환자도서관과 UCSF Mount Zion Medical Center, NYU Langone Medical Center, Middlesex Hospital Cancer Center의 환자도서관을 조사하였다.

① Johns Hopkins Bayview Medical Center의 Community Health Library: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일반인을 위한 의학 도서, 저널, 일반 도서 등을 소장하고 있고, MedlinePlus[®]와 암, 여성 및 남성, 노인 등 주제별 신뢰할 만한 보건정보원과 이용법에 대한 브로슈어를 제작, 비치하여 환자, 보호자 및 방문객에게 보건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정보를 찾는데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Bayview Medical Center 의학도서관(Harrison Medical Library)의 사서 1인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사서들이 교대로 방문자의 보건정보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종교단체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정보 웹 DB에 대한 소개와 이용법 등 일반인의 올바른 건강정보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②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Kessler Health Education Library: Kessler Health Education Library⁴²는 환자, 보호자 및 방문객들이 외래, 입원 등 치료 기간에 편안한 환경과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Robert and Ronnie Bretholz Center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정보 및 자원을 제공한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일반인을 위한 건강 및 질병 관련 도서, 잡지, 팸플릿, 브로슈어와 비디오테이프, CD 등 멀티미디어자료를 비치해 놓았고 사서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전문적인 보건 및 질병 정보에 대한 질의를 하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환자 교육용 자료나 교육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수업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③ UCSF Mount Zion Medical Center의 UCSF Patient Health Library: UCSF Patient Health Library⁴³는 환자의 보건정보요구가 의료제공자를 위한 의학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 제공 용량을 넘어서게 되어 2008년에 별도의 환자도서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병원 편드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의사 1명의 기부로 사서를 채용하여 2009년 12월에 개관하였다. 서비스 대상을 환자, 보호자 및 방문객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가능한 환경과 의학 단행본, 저널, 건강 뉴스레터 등을 소장하고 있고 유/무료의 복사, 출력, Fax,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소개, 소장 자료검색, 소비자보건정보원(웹사이트)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의학사서(Patient Health Librarian)가 상주하면서 건강정보 검색을 지원하고 있고 Mount Zion Medical Center 의학도서관(Fishbon Memorial Library)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보건의료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④ NYU Langone Medical Center의 Patient Libraries: NYU Langone Medical Center (NYULMC)의 환자도서관⁴⁴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들이 진단, 상태, 치료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사서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직접방문은 물론이고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으로 문의할 수 있다. NYULMC에는 환자가족자원센터(Patient and Family Resource Center), 어린이병원, 암센터에 세 개의 환자도서관이 있다. 세 환자도서관은 모두 보건, 의학 관련 책과 여러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Have a Health Related Question? Ask a Librarian'를 통해 질문을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누구나 질문할 수 있다. 응급상황인 경우 91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라는 문구가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뇌동맥류는 무엇인가?”와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두 가지를 질문을 입력했고,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MedlinePlus[®]와 같은 보건정보원, 관련 협회 등의 링크를 제시하였고, 하단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소비자보건정보는 의료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책임부인(disclaimer)을 명시하였다.

⑤ Middlesex Hospital Cancer Center의 Patient Resource Library: Middlesex Hospital Cancer Center⁴⁵ 내에 설치된 환자도서관은 코네티컷 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를 위한 암 정보도서관이며 이용자들이 암, 치료, 생존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확한 최신 소비자보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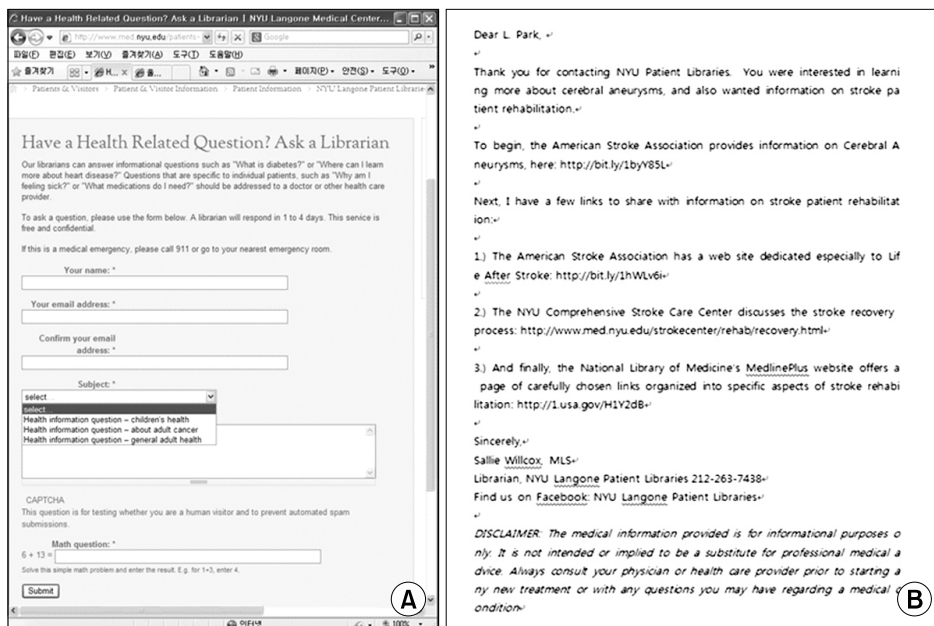


그림 1. NYULMC 환자도서관 'Have a Health Related Question? Ask a Librarian'. A. 보건 정보 신청 페이지, B. 메일 회신 내용.

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관 서비스는 무료이며 지역사회에도 개방하고 있다. 본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압 정보원을 제공하고 도서, DVD, CD를 1개월간 대출할 수 있다. 각종 브로슈어와 요리책, 암환자 수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Light One Little Candle Foundation'의 지원으로 암 투병중인 소아의 가족에게 무료로 어린이도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사서는 암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밀이 보장되며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다.

⑥ 미국 환자도서관 사례 분석: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은 PubMed를 비롯한 의학전문 DB뿐만 아니라 MedlinePlus[®]와 같은 소비자보건 분야까지 의학 전 분야의 웹 DB나 자원을 생성, 관리하며 의학분야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의학 및 보건 정보의 올바른 이용과 활용을 주도하고 있다.

MedlinePlus[®]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신뢰할 만한 의료건강정보원의 하나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NLM 뿐만 아니라 Johns Hopkins, Harvard, UCSF 등 미국의 주요 의대 및 부속 병원은 주요 소비자보건정보원을 구축, 관리, 활용을 주도하며 독립 공간의 환자도서관을 갖추고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일반 도서의 열람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방문객과 지역 주민 등 일반인을 위한 보건과 질병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3) 일본

① 東邦(토호)대학 의료센터 오모리병원 환자도서관: 오모리병원 환자도서관⁴⁶은 토호대학 의료센터와 토호대학 의학미디어센터의 제휴로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인에게 질 높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의학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사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약사, 보건기사, 영양사 등으로 이루어진 환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승인한 의학전문자료로서 주

로 의학전문서, 환자들이 자주 찾는 이해하기 쉬운 의학도서, 종합의학잡지, 의학사전류, 의약품집, 병원이나 환자단체 등의 명부, 주소록, 관련 시청각자료, 팸플릿, 리플릿 등을 수집, 비치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과 비디오, DV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 오락도서, 투병기, 병에 관한 에세이 등은 원칙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서 검색이 가능하고(토호대학 미디어센터의 장서검색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있음) 의학미디어센터의 사서가 병과 치료법, 약에 대한 정보 자료와 이용법에 대한 정보원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환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 의사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② **일본 환자도서관 사례 및 현황 분석:** 일본의 환자도서관 및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활동은 일본도서관협회에서 2004년 건강정보위원회를 발족하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시작하고 2007년부터 관중 및 기관을 초월하여 여러 기관에서 연대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일본의학도서관협회에서도 2004년 중장기 목표로 환자 및 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2010년 중점사업으로 ‘도서관을 위한 건강정보연수’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2년에는 환자,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에게 의학, 간호학, 약학, 치의학, 재활, 사회복지, 식이, 운동, 건강증진 등 보건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료, 건강정보위원회’ 신설하고 ‘의료, 건강정보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의료, 건강정보 워킹그룹’은 의료계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를 위한 소비자보건정보 서비스 연수 실시, 강사 육성, 소비자건강정보 교재 출판 등을 하고 있다.

일본의 환자도서관 및 소비자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1997년과 2005

년 의료법 개정(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1997년 병원기능평가(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결정한다), 2007년 암 대책 기본법(거점 병원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등 관련 법 및 평가 제정이 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일본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은 1990년대 11기관에서 2000년대에 172기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는 차이가 많다. 의료진을 위한 도서관을 환자에게도 개방하는 기관이 5%,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도서관 형태가 89%, 의료진 도서관과 환자용 도서관이 인접한 기관이 6%이며 도서관 또는 정보센터(75%), 환자상담지원센터(18%), 복합형 및 기타(7%)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인력으로 사서가 있는 기관은 38%, 자원봉사자가 49%, 간호사 등 의료제공자가 12%로 조사되었다.⁴⁷ 주로 대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자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독립된 환자도서관을 운영한다. 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으나 주로 환자, 시민을 위한 코너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자료를 선택, 수집하여 비치, 제공하고 질병이나 약에 관한 도서, 잡지, 팸플릿 류를 모아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검색하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일본의학도서관협회에서는 2009년 제16회 의학도서관원기초연수회에서 <일반시민에게의 의료정보제공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학도서관과 일반인을 위한 의료정보서비스, 각종 도서관 및 의료종사자와의 연계체제구축, 소비자보건정보제공의 실제와 과제, 제공방법, 의학도서관사서의 역량과 역할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일본 내에서의 환자도서관과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⁴⁸ 일반시민에게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모 기관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 해결하며 정착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기관의 공통 문제이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학 전문가가 아닌 사서로서 이용자의 보건정보 요구에 어디까지 부응할 수 있는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가 결과적으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과 불안, 또 일부 치료 방침 등 개인정보에 관한 의료제공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 않음으로 증가된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대응 시 판단을 위한 재료의 일부임(disclaimer)을 명시 및 공지하는 원칙과 함께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부속 도서관인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직원이나 학생의 학습과 연구를 우선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일반에게 공개 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며 예산 및 장소, 인력의 확보, 운영 기준 및 규정, 장서 선정 등에 한계가 있지만 대상을 우선 지역 의료 종사자나 환자로 한 후에 점차적으로 확장해 간다

든지 공공도서관 및 지역시설과의 연계 등을 모색하는 등 모 기관 및 자관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일반인 대상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도서관에 정착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양성 성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는 사서 자신이 스스로 관련 지식을 쌓아 가고 또한 사서들 간에 지식 정보 뿐 만 아니라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로서의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모형 개발

<표 3>의 CHI 3요소와 논문 고찰,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사례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국내 현실에 맞게 3단계 모형으로 제시한다.

국내는 소비자보건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환자도서관이 교양 도서를 열람하는 휴게 문화

표 5. 국내 환자도서관 설립 3단계 모형

항 목	1단계	2단계	3단계
이용자	환자 및 보호자	1단계 또는 이상	1단계 또는 이상
시 설	독립공간 확보	1단계와 동일	1단계와 동일
예 산	외부, 후원 기금, 자체 예산 등 다양한 형태 *자체 예산정책 필수	1단계와 동일	1단계와 동일
인 력	담당인력 배치	사서	의학사서, 운영위원회
장 서	일반도서	1단계+소비자보건정보 도서 및 시청각 자원	2단계+병원 및 국내외 기관에서 생산한 소비자보건정보 관련 브로슈어, 동영상, 온라인자원 등
서비스	열람안내, 대출	1단계+사서의 소비자보건정보 도서에 대한 선정 및 수서, 열람안내, 대출	2단계+CHI 서비스 *환자 및 보호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레퍼런스서비스

시설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자보건정보 구입, 사서 고용 등의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예산 정책, 시설은 단계별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고 보건정보 수서 정책, 인력 구성,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에 따라 국내 환자도서관 3단계 모형을 <표 5>와 같이 설계하였다.

1. 이용대상

일차적으로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입원, 내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 주민, 일반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시설

병원 내에 환자도서관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환자도서관이 의학도서관(직원 대상) 내에 위치하더라도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3. 예산

외부 지원, 후원 기금,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병원에 환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정책이 있어야 한다.

4. 인력

기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 2단계 담당 인력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3단계에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전문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1명 이상의 사서로 하며 소비자보건 정보원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5. 장서

문학, 여행, 종교 등의 일반도서를 시작으로 2단

계는 일반도서 외에 정기간행물, 시청각 정보원 등을 소장할 수 있으며 사서가 선정하고 수서한 소비자보건정보원을 반드시 소장해야 하며 장서 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3단계는 2단계 모형과 동일하되 추가로 병원 및 국내외 기관에서 생산된 소비자보건정보 팸플릿, 브로슈어, 동영상, 웹 정보원 등을 소장, 검색,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6.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

1단계는 소비자보건정보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 2단계는 소장 소비자보건정보원에 대한 안내, 대출 서비스를 수행한다. 3단계는 완전한 형태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소장 소비자보건정보원 안내, 병원제작 또는 국내외 소비자보건정보원을 제공해야 하며 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직접방문 응대,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결 론

현재 국내 환자도서관은 교양, 일반도서의 열람, 대출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일부 사서가 배치된 기관도 있으나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없다. 대부분은 병원 행정부서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다. 전담 사서가 있어도 환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의 해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환자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규모, 인력, 서비스, 자원, 위치 등 많은 요소가 모 기관의 성격과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완전한 모델을 구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국내외 문헌 고찰과 가이드라인 분석, 사례 조사를 토대로 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단계별 주요 요소를 전담 인력(사서)과 소비자보건정보원 및

서비스로 설정하고 3단계의 환자도서관 설립 모형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자도서관은 1단계에 해당되고 2, 3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도서관은 없는 상황이므로 예산이나 인력, 장소, 시설의 크기나 규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추후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산출하고 소비자보건정보원에 대한 평가와 선정, 독서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국내 실정에 맞는 환자도서관이 설립 또는 확대되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 높은 소비자보건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에 의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환자도서관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을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1. Spatz M. Health information for patients and consumers. In: Bandy MM, Dudden RF, editors.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Guide to Managing Health Care Libraries, 2nd Edition. New York: MLA and Neal-Schuman; 2011. pp. 321-42.
2. Bandy M. Health information for patients and consumers. In: Holst R, Phillips SA, editors.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Guide to Managing Health Care Libraries. New York: MLA and Neal-Schuman; 2000. pp. 325-50.
3. 한국도서관협회. 병원(환자)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3. pp. 76-87.
4. 磯野 威, 牛澤 典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 44회 추계 학술대회 심포지엄 참가보고. 醫學圖書館. 2013;60(2): 201-12.
5. Panella 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nstitutions. Section of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Guidelines for libraries serving hospital patients and the elderly and disabled in long-

- term care facilities: Hague: IFLA Headquarters; 2000.
6. Deering MJ, Harris J. Consumer health information demand and delivery: implications for librarie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6;84(2):209-16.
7. Panella NM. The patients' library movement: an overview of early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organized libraries for hospital patient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6;84(1):52-62.
8. Perryman C. Medicus Deus: a review of factors affecting hospital library services to patients between 1790-1950.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06;94(3):263-70.
9. ALA Hospital Library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Library Services in Health Care Institutions. Chicago: ALA; 1970.
10. ALA Librarianship. The librarian's role in the provis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and patient education.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6;84(2): 238-9.
11. 홍기선.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5;36(2):263-81.
12.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 Patient's bill of rights. Chicago: AHA; 1972.
13.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ospitals. 4th ed. Oakbrook Terrace, IL: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2010.
14. Attwood CA, Wellik KE. Collaboration, collegiality, and cooperation: consumer health library services an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navigator role.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12;16(5):487-90.
15. Pittman TJ, O'Connor MD, Millar S, Erickson JI. Patient education: designing a state-of-the-art consumer health information library.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1;31(6):316-23.
16. Brawn TS. Consumer health libraries: what do patrons really want?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2005;93(4):495-6.
17. 김민희, 김양희, 김은민, 민미라, 성누타, 이은영, 이해영, 정수진. 병원 환자도서관 운영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연구지. 2005;31:97-121.
18. Krusinga FH, Heinen RC, Heymans HSA. Analysis of the question-answer service of the Emma Children's Hospital information centre.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2010;169(7):853-60.

19. Calabretta N. The hospital library as provider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996;15(3):13-22.
20. Rees AM. Communication in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3;81(1):1-10.
21. Sweetland J. Health Facts Information Centre, Frenchay Hospital, Bristol: five years 1988-1992. *Health libraries review*. 1994;11(2):138-42.
22. Babish JA. CHI services: consumer health library consortia--a growing trend. National network (Dallas, Tex). 2001;26(2):9.
23. Beschnett A, Bulger J. Patient Education and the Hospital Library: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2013;13(1):42-6.
24. Kennedy MG, Kiken L, Shipman JP. Addressing underutiliz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resource centers: a formative study.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MLA*. 2008;96(1):42-9.
25. Lerner JC, Fox DM, Ruzek SB, Shearer GE. The case for a national patient library. *Health affairs (Project Hope)*. 2010;29(10):1914-9.
26. Lambremont J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the hospital setting.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997;16(2):61-7.
27. Rothstein JA. Ethics and the role of the medical librarian: health care information and the new consumer.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93;81(3):253-8.
28. Shaw-Daigle C, Giles-Smith L, Raynard M. What your patient reads: creating a value-added tool for physicians.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011;30(3):213-20.
29. Klein-Fedyshin M, Burda ML, Epstein BA, Lawrence B. Collaborating to enhance patient education and recovery.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05;93(4):440-5.
30. Calman A. Are volunteers worth the effort? Maximizing the value of volunteers in the hospital library.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2010;10(4):395-401.
31. 홍재현. 입원환자에 대한 도서봉사: 일본환자도서관연구회 활동보고. *도서관*. 1989;44(14):54-70.
32. Marshall JGJ-GSLMLSKKBCANS. The valu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patient care: results of a multisite study.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13;101(1):38-46.
33. Neal RE, Brower SM. Morningcrest Health Library: A Clinic-Based Approach to Health Information Literacy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Health on the Internet*. 2013;17(1):76-85.
34. Leird JM. Libraries and seasons of cancer survivorship. *Journal of Hospital Librarianship*. 2010;10(3):279-88.
35. Kinnane NA. Evaluation of a hospital-based cancer information and support centre. *Supportive care in cancer : official journal of the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2012;20(2):287-300.
36.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37. 책임는사회문화재단. <http://www.bookreader.or.kr>.
38. 징검다리도서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ibrary4u>.
39. 아름인도서관. <http://www.aruminbook.com>.
40. 함춘서재. <http://library.snuh.org>.
41.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http://healthinfo.amc.seoul.kr>.
42. Brigham and Women's Hospital, Kessler Health Education Library. http://www.brighamandwomens.org/Patients_Visitors/patientresources/patienteducation/healtheducation/default.aspx.
43. Library UPH. <http://ucsfph.blogspot.kr/>.
44. NYU Langone Medical Center Patient Libraries. <http://www.med.nyu.edu/patients-visitors/patient-visitor-information/patient-information/nyu-patient-libraries>.
45. Middlesex Hospital Cancer Center Patient Resource Library. <http://middlesexhospital.org/our-services/hospital-services/cancer-center/events-and-resources/patient-resource-library>.
46. 東邦(토호)대학 의료센터 오모리병원 몸의 도서실. <http://www.mnc.toho-u.ac.jp/mmc/karada/>.
47. 牛澤 典子.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위한 의료, 건강정보서비스. 제44회 한의도협 추계학술대회 특별강연; 2012.
48. 長谷川佳子. 특집 제 16회 의학도서관원기초연수회 [그룹 토론] 테마A: 일반시민에게의 의료정보제공을 생각하다. *醫學圖書館*. 2010;57(1):59-64.